

전남도, 중국 항저우와 관광교류 강화 나선다

김 지사, 무안공항 활성화 설명회 9월부터 주2회 정기노선 취항기로 글로벌 남도한바퀴 연계 상품 관심 “세계적 문화·관광 콘텐츠 제공”

전남도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중국 저장성 항저우와 관광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부터 무안국제공항과 중국 항저우를 오가는 정기노선이 취항할 예정이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중국을 방문 중인 김영록 지사는 지난 9일 중국 항저우 나라다 그랜드 호텔에서 현지 여행·항공업계 관계자와 언론인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전남 관광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날 관광설명회에는 전광성 중국 저장성 문화방송여유정장과 노타에어서비스, 통에어 등 항저우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중국 굴지의 여행·항공업계 관계자가 참석해 향후 중국과 전남 간 관광교류 활성화에 기대감을 더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남 관광 자원 홍보에 이어 손정권 에이앤티 대표, 저우전성 노타에어서비스 대표와 함께 ‘무안-항저우 정기편 취항 업무협약’도 진행했다. 협약에 따라 오는 9월 중순부터 무안-항저우 정기노선을 주 2회 운항할 예정이다.

협약식에서는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베트남, 대만, 몽골 등 다양한 국가의 노선을 운항하고 있는 전남 인바운드 여

행 1위 기업인 에이앤티에서 전남 전용 3박4일, 호남권 4박5일 여행상품 및 글로벌 남도한바퀴 연계 상품을 홍보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 특히 전남도관광플랫폼(JN TOUR) 어플을 활용한 자유여행 소개도 겸해 패키지 관광뿐만 아니라 개별 관광을 원하는 중국인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영록 도지사는 “무안-항저우 정기노선 취항으로 26년간 자매도시로서 깊은 인연을 이어온 전남도와 저장성의 우정이 더욱 돈독해질 것이라 믿는다”며 “앞으로 항공편을 통해 많은 분이 전남을 방문해 세계적 수준의 문화·관광 콘텐츠와 가장 한국스러운 전남의 맛과 멋을 함께 즐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중국을 방문 중인 김영록 전남도지사(가운데)가 9일(현지 시간) 저장성 항저우 나라다 그랜드호텔에서 현지 여행항공업계, 언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남관광설명회에서 손정권 A&T 대표(왼쪽), 저우전성 노타에어서비스 대표와 무안-항저우 정기편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 “북한이탈주민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광주시는 10일 시청 열린청사에서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북한이탈주민의 포용과 정착 지원을 위해 2024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날로, 매년 7월14일이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날(1997년 7월14일)이기도 하다.

이날 행사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기념해 ‘동행’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시식행사·토코콘서트 등 북한이탈주민과 시민들의 소통의 시간으로 구성됐다. 특히 성공적으로 정착해 광주시민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강현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지역 부의장, 광주광역시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소속 황성호 광주하나센터장, 이은희 광주하나문화교류센터장, 부덕임(사)솔잎심터 이사장 등 북한이탈주민과 시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함북냉면, 속도전떡, 언감자떡, 인조고기밥 등 북한 음식을 직접 만들어 함께한 시민들과 시식행사를 진행했다. 또 이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기관 및 단체 회원들이 10일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기념행사에서 이탈주민들의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들이 지역에 정착해 직접 제조한 국수, 수제청, 커피 등을 소개하고 판매했다.

이날 판매한 수익금의 일부는 2025년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신학기 책가방 지원을 위해 광주하나센터에 기부했다. 북한이탈주민으로 구성된 공연팀은 공연과 장기자랑을 통해 시민들에게 끼와 재능을 선보이고, 북한이탈주민들은 고향을 떠나 온 향수를 달랬다.

토코 콘서트에서도 ‘동행’이라는 주제

로 탈북 과정의 아픔을 나누고, 광주에 정착해 살아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진솔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북한이탈주민 이은정(가명) 씨는 “시청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모여 행사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쁘다”며 “자녀들한테는 엄마가 북에서 왔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탈북민이라는 말을 편견 없이 말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본격화

장애인 12명·보조인력 2명 채용 8~12월 사업비 7300만원 투입

광주시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사업비 7300만원을 투입, 중증장애인 12명과 중증장애인을 도울 2명의 보조인력을 채용하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진행한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생산성과 경쟁력이 낮은 중증장애인에게 경제적 보상보다는 참여를 통한 노동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해 자립기반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중증장애인은 기존 공공일자리 사업이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운영 중인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 참여가 어려웠다. 광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 권익옹호, 문화예술활동, 인식개선 활동 등 다양한 직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돼 자존감과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여자 인건비는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등을 감안해 주 15시간 기준으로 월 78만원, 사업수행을 도울 전담 보조인력은 주 40시간 266만원 수준이다.

광주시는 중증장애인을 채용할 수행기관을 오는 19일까지 공모하고, 수탁기관인 (사)광주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현장전문가 등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5일 2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올해 재정형편상 예산확보가 어려워 우선 장애인복지기금을 활용해 시행한다. 다만 내년도에 재정여건이 개선되면 사업규모 확대와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남미선 장애인복지과장은 “올해 사업규모는 현상수요에 비해 소규모이지만,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사회적 인식 확대에 기여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선 8기 통합돌봄 역점시책과 함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광주시가 더 촘촘히 챙기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장애인 고용실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21.5%, 비장애인 고용률은 61%로 중증장애인 고용률이 3분의 1 수준이다. 또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이 37.4%인 반면 비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이 65.3%로,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이 비장애인보다 절반 가까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병하 기자

그린알로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